

태국 생명보험시장 동향¹⁾

□ 경제 동향

-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유행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를 겪은 후,
- 백신 보급, 활동제한조치 완화, 입국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2.6%에 머무는 등 실물경제가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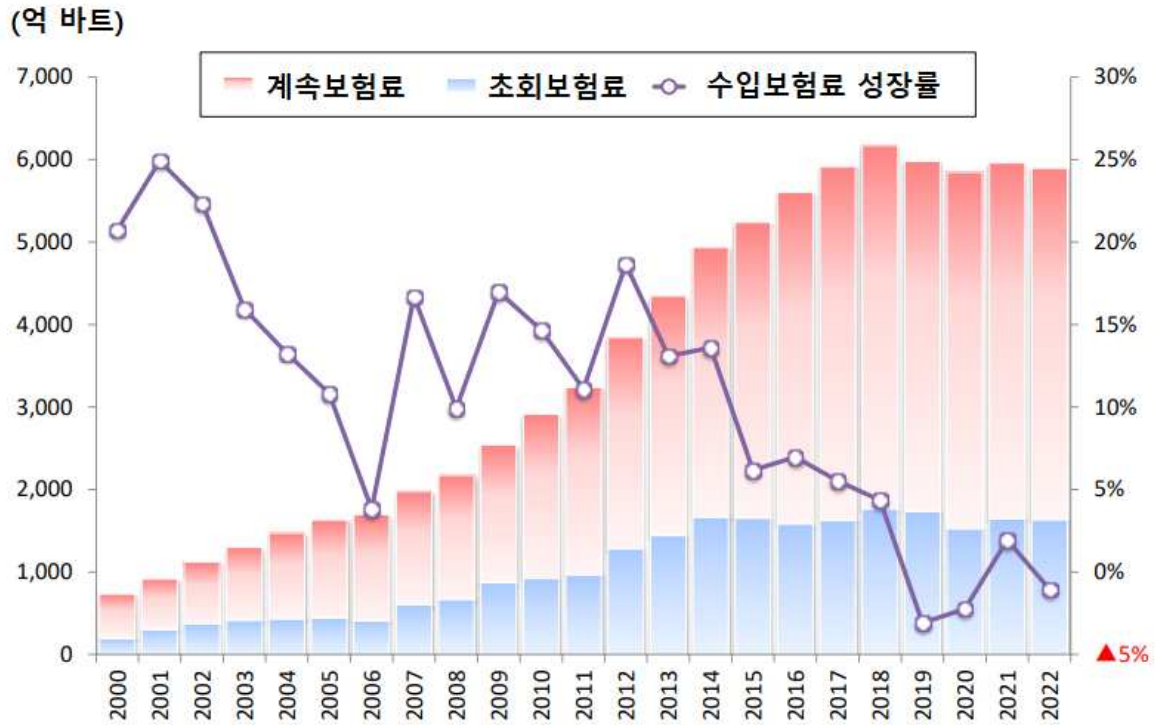
* 2022년 명목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전년 대비 +7.4%

□ 생명보험 전체 실적

- 태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중이 약 7:3 수준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손해보험의 약 두 배 규모
-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2022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.1% 감소한 5,897억 바트(약 22조원)로,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성장률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음 [그림1]
 - 초년도 보험료(-0.6%) 및 계속보험료(-1.2%) 모두 감소하였으나, 보유계약은 건수(+2.0%)와 금액(+2.6%) 모두 증가함 [그림2]
- 2022년의 생명보험 성장 정체에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음
 - ❶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확대되어 투자성 보험상품 판매가 부진한 점
 - ❷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 생활의 불안정성 증대
 - ❸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자 구매력 감소 (보험보다 의식주 관련 필수재 소비를 우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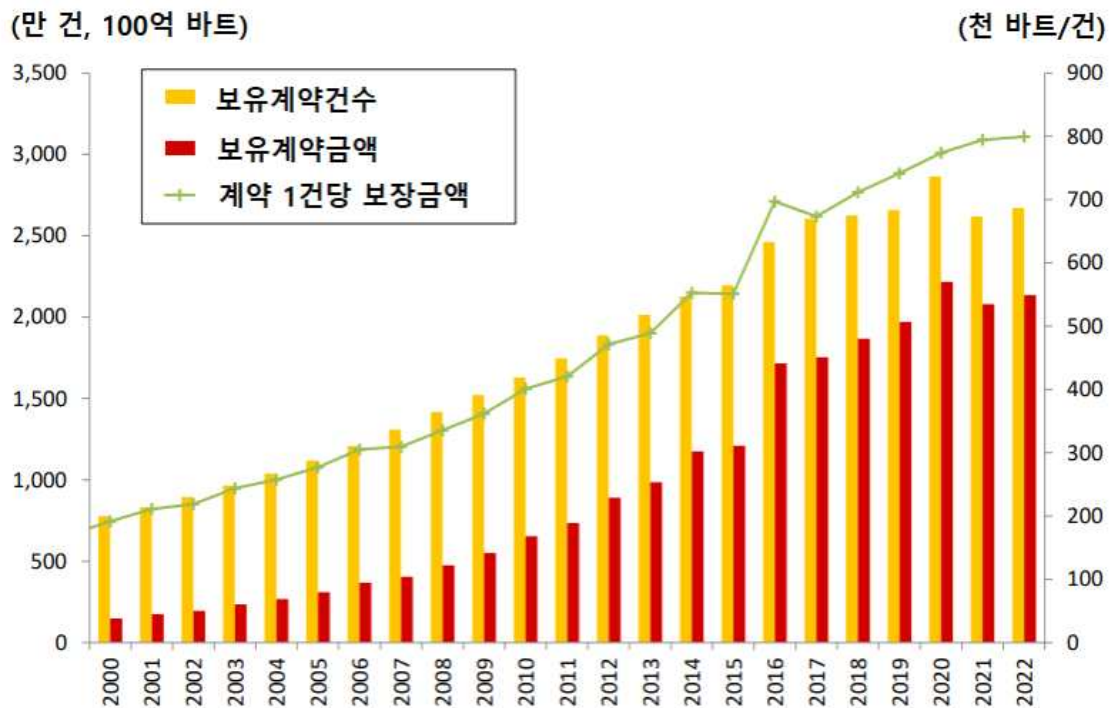
1) 닛세이키초연구소 「2022년도 태국 생명보험시장」(2023.09.19.)를 참고로 작성

[그림1] 수입보험료 추이



* 출처 :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

[그림2] 보유계약건수 및 보유계약금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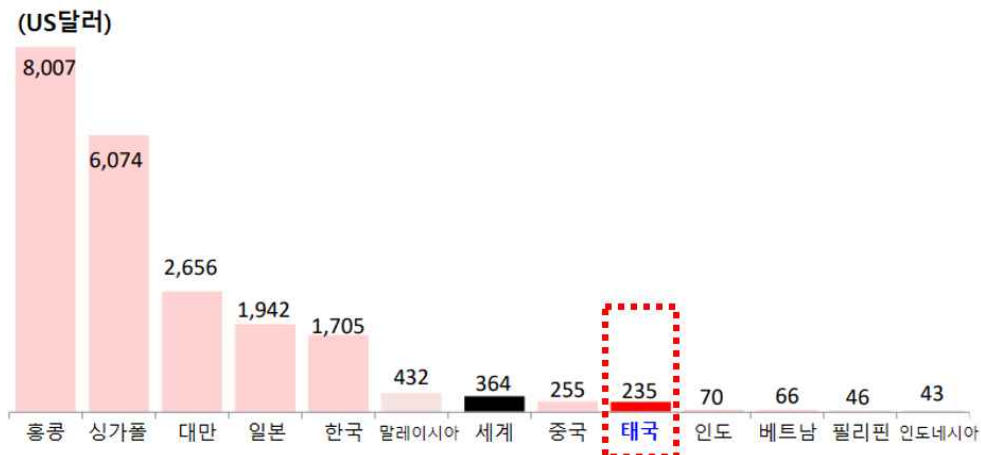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

□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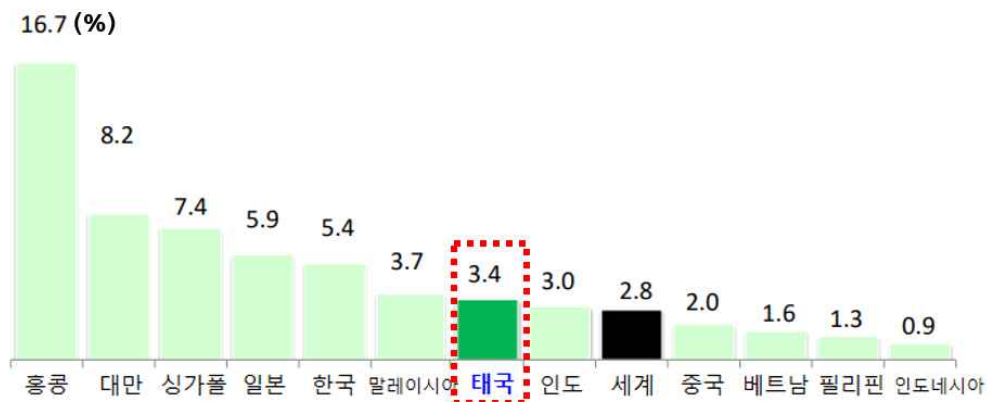
- 2022년도 태국의 생명보험 밀도(1인당 생명보험료)는 235달러, 생명보험 침투율(GDP 대비 생명보험료)은 3.4%로 한국, 홍콩, 대만,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
 - 이러한 지표는 향후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시사
- *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시장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은 각각 369달러와 5.3%로 세계평균(각각 853달러 및 6.8%)에 비해 낮은 수치

[그림3] 아시아 주요국 보험밀도 - 1인당 생명보험료(2022년)



* 출처 :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술연구소 작성

[그림4] 아시아 주요국 보험침투도 - GDP 대비 생명보험료(2022년)



* 출처 :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술연구소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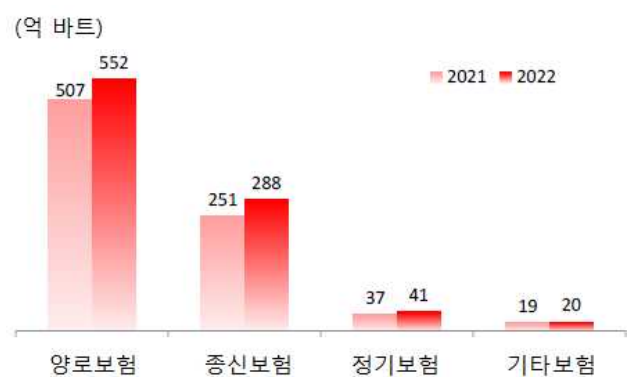
□ 보험종목 · 상품별 판매 동향

- (신계약보험료) 채권수익률 상승에 따른 예정이율 인상으로 양로 보험/정기보험 실적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,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성향 확대로 투자성 보험 실적은 부진함
 - 사망보험* +10.7%, 단체보험 +10.2%, 연금보험 +31.3% (그림 5)
 - * 양로보험, 종신보험, 정기보험 등을 포함.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이 97%를 차지함
 - : 태국에서 인기상품인 양로보험은 전년대비 +9%, 종신보험은 +14.5%, 정기보험 +4.6% 성장함 (신계약보험료 기준)
 - 변액보험 -49.8%, 기타보험(간이보험 및 유니버설 등) -31.3%

[그림5] 보험종목별 신계약보험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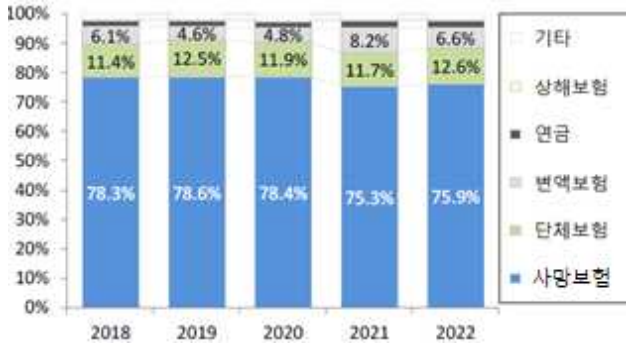
[그림6] 주요 사망보험 신계약보험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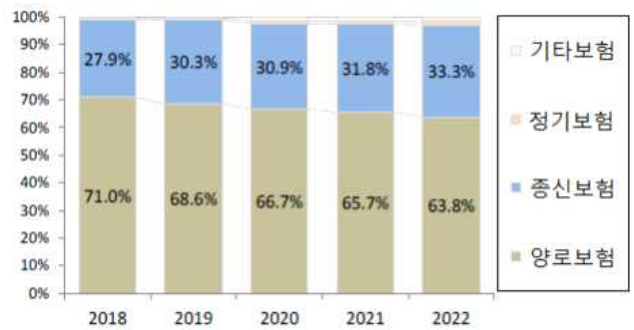
* 출처: 태국 금융감독위원회(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, OIC)

- (수입보험료)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로보험은 전년대비 -3.4% 감소한 반면 종신보험은 +4.0% 증가함
 - 보종별 수입보험료 구성을 보면, 양로보험이 63.8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신보험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
 - 이는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점, 소득 향상의 영향으로 소비자 니즈가 저축성이 강한 양로보험에서 보장성이 강한 종신보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임

[그림7]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



[그림8] 주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비중



* 출처: 태국 금융감독위원회(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, OI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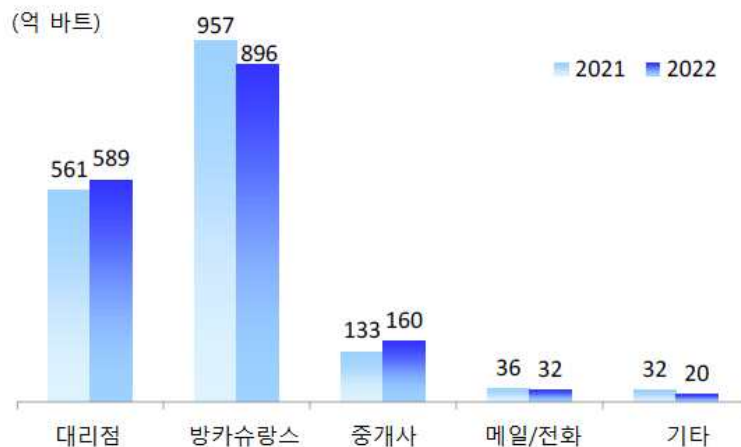
□ 판매채널 동향

- 태국의 판매채널은 대리점과 방카슈랑스로 양분* 되어 있는데 전통적 채널인 대리점은 2022년 신계약이 5.0% 증가하며 2년 연속 성장했으며 방카슈랑스는 -6.4%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함

* (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) 대리점 53.2%, 방카슈랑스 38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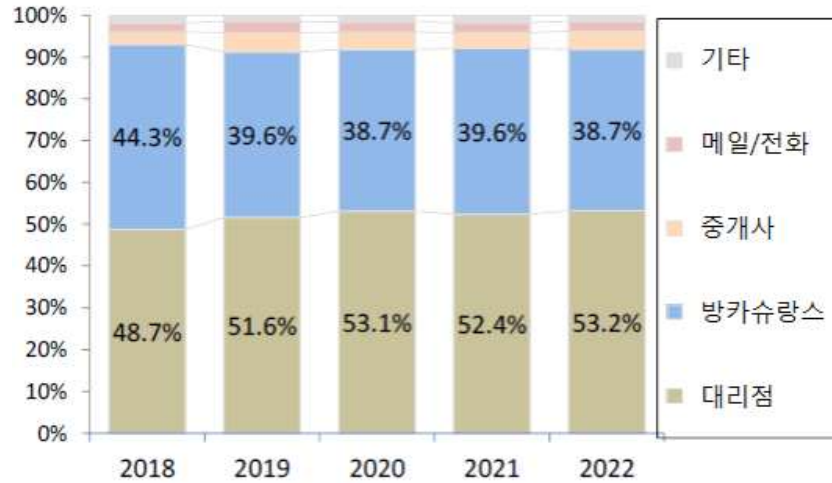
- 방카슈랑스는 2002년 허용된 이래 탄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왔으나, 최근 몇 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력상품인 일시납 보험 판매가 부진하여 비중이 다시 축소되고 있음

[그림9] 판매채널별 신계약보험료



* 출처: 태국금융감독위원회(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, OIC)

[그림10] 판매채널별 신계약보험료



* 출처: 태국금융감독위원회(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, OI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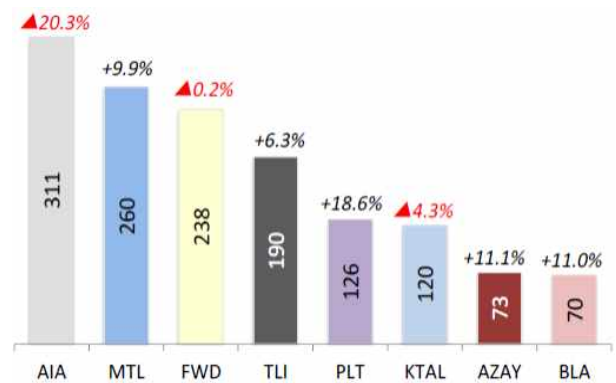
□ 회사별 점유율

- 수입보험료 비중 기준으로 태국의 상위 4개 생보사는 AIA(24.9%), TLI(14.4%), FWD(13.7%), MTL(11.3%)이며 4개사의 비중은 전체의 약 64%
- 1&2위사인 AIA와 TLI 모두 대리점 채널 중심이며, 3&4위사인 Muang Thai Life와 FWD는 방카슈랑스가 주력 채널

[그림11] 회사별 수입보험료 비중



[그림12] 회사별 신계약보험료



* MTL(Muang Thai Life), TLI(Thai Life), PLT(Prudential Life Assurance Thailand), KTAL(Krungthai AXA Life), AZAY(Allianz Ayudhya), BLA(Bangkok Life)

* 출처: 태국 생명보험협회 TLAA(The Thai Life Assurance Association)

□ 향후 전망

- 2022년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로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가 부진하여 2년 연속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
- 그러나 고령화 및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의료보험 수요가 증가했으며, 채권 수익률 향상에 따른 예정이율 인상으로 종신/양로 보험 실적이 회복되는 등 **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**
- 2023년 태국 경제는 외부 수요 악화라는 악재 속에서도 관광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**생명보험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**
 - 1~7월 누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+4.5%
 - 저금리 추세 완화로 양로보험 등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